

2018년 서울시 9급 한국사 정답해설(6월 23일 시행) - A책형

1. 고려의 문화에 대한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 ① 고려의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백자는 상감기법을 이용한 것이다.
- ② 고려는 세계 최초로 금속활자를 발명하였다.
- ③ 팔만대장경판은 거란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한 염원을 담아 만든 것이다.
- ④ 고려는 불교국가여서 유교문화가 발전하지 못하였다.

1. 정답 : ②

② 고려시대 금속활자는 세계에서 가장 먼저 창안된 금속활자로서, 인쇄본으로 『백운화상 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이 전한다. 『직지심체요절』은 독일의 구텐베르크 금속활자 인쇄본 보다 약 70여년 앞선 1377년(우왕 3년)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다.

① 고려의 귀족문화를 대표하는 자기는 청자로, 12세기 중엽 나전칠기나 은입사 공예에서 응용된 상감기법을 이용한 상감청자가 유행하였다. ③ 팔만대장경은 몽골의 침입을 물리치기 위해 강회 천도기에 만들어졌다. ④ 고려는 국교를 불교로 하였으나, 정치 이념은 유교를 수용하여 운영하였다. 대표적으로 성종 대의 유학자 최승로가 올린 ‘시무 28조’에는 불교는 수신의 근본이고, 유교는 치국(治國)의 근본이라 하여 유교 정치 체계화를 주장하였다.

2. 조선 전기에 편찬된 서적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본조편년강목』
- ② 『의방유취』
- ③ 『삼국사절요』
- ④ 『농사직설』

2. 정답 : ①

① 『본조편년강목』은 충숙왕 때 민지가 편찬한 성리학적 역사서로 주자의 강목법을 도입한 최초의 역사서에 해당한다.

② 세종 27년(1445)에는 왕명으로 의관 전순의 등이 의학 백과사전인 『의방유취』를 편찬하였다. ③ 조선 성종 때인 1476년 단군 조선부터 삼국의 멸망까지 다룬 역사서인 『삼국사절요』가 편찬되었다. ④ 세종 11년(1429) 왕명을 받아 정초, 변효문에 의해 우리나라 최초의 농서인 『농사직설』이 편찬되었다.

3. <보기>의 통일신라시대의 경제제도를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중앙과 지방의 여러 관리에게 매달 주던 녹봉을 없애고 다시 녹읍을 주었다.
 ㄴ. 중앙과 지방 관리들의 녹읍을 폐지하고 해마다 조(祖)를 차등 있게 주었으며 이를 일정한 법으로 삼았다.
 ㄷ. 처음으로 백성들에게 정전(丁田)을 지급하였다.
 ㄹ. 교서를 내려 문무 관료들에게 토지를 차등 있게 주었다.

- ① ㄴ→ㄱ→ㄹ→ㄷ
 ② ㄴ→ㄹ→ㄱ→ㄷ
 ③ ㄹ→ㄷ→ㄴ→ㄱ
 ④ ㄹ→ㄴ→ㄷ→ㄱ

3. 정답 : ④

ㄹ. 687년 신문왕은 관리들에게 관료전을 지급하였다. ㄴ. 689년에 녹읍을 폐지하고 세조(歲租)를 지급하였다. ㄷ. 722년 성덕왕 대에 민생을 안정시키고 백성에 대한 토지 지배권을 강화하기 위하여 정전을 지급하였다. ㄱ. 757년 경덕왕 대에 귀족들의 반발로 녹읍제가 부활하였다.

4. 무신집권기 지방민과 천민의 동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조위총은 백제 부흥을 위해 봉기하였다.
 ② 망이·망소이의 난은 일반 군현이 아닌 소에서 일어났다.
 ③ 경주를 중심으로 한 지역에서는 신라부흥을 내걸고 빙린이 일어나기도 했다.
 ④ 만적은 노비해방을 내세우며 반란을 모의하였다.

4. 정답 : ①

① 무신집권기 백제 부흥을 도모하며 일어난 반란은 이연년 형제의 난이다. 조위총은 무신집권기 가혹한 수탈에 대항하여 반무신난(1174)을 일으켰던 인물이다.
 ② 공주 명학소에서 망이·망소이가 일반 혁으로 승격시켜 주기를 요구하면서 반란을 일으켰다. ③ 1193년(명종 23)에 일어난 김사미·효심의 난은 십수 년 동안 지속된 동경(경주) 민란의 하나로 신라 부흥을 표방하였고, 1202년 경주에서 이비·폐좌 등에 의해 신라 부흥을 표방한 동경의 난이 일어나기도 하였다. ④ 최충현의 사노(私奴) 만적이 개경 북산(北山)에서 나무를 하다가 공(公)·사(私) 노비들을 모아놓고 “사람이면 누구나 공경대부(公卿大夫)가 될 수 있다.”라고 주장하며 봉기를 계획하였다. 만적이 모인 노비들의 동조를 얻은 후, 치밀하게 세운 계획대로 실행에 옮기려고 하였으나 결국 실패하고 말았다.

5. <보기>의 사건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아관파천
 ㄴ. 전주화약 체결
 ㄷ. 홍법 14조 발표
 ㄹ. 군국기무처 설치

① ㄱ→ㄷ→ㄴ→ㄹ

② ㄴ→ㄹ→ㄷ→ㄱ

③ ㄷ→ㄱ→ㄹ→ㄴ

④ ㄹ→ㄴ→ㄱ→ㄷ

5. 정답 : ②

ㄴ. 정부의 요청으로 청군이 들어오고 텐진 조약에 의거해 일본군이 조선 내에 들어오자, 정부와 동학 농민군 사이에 전주 화약이 체결되었다(1894. 5. 8). ㄹ. 정부가 철병 요청을 하였으나 일본은 조선 내정 불안을 꼬투리 잡아 ‘내정 개혁안’을 제시하며 일본군 주둔의 명분을 만들었다. 1894년 6월 21일 경복궁을 점령한 일본은 민씨 일파를 실각시키고 대원군을 앞세워 교정청 대신 군국기무처를 설치하였다(1894. 6. 25). ㄷ. 흥선 대원군 계열을 제거하고 동학 농민군을 진압한 일본은 김홍집과 박영효의 연립내각을 수립하였고, 조선 정부에 개혁 원칙을 공고히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고종은 왕세자와 신하를 거느리고 종묘에 나가 ‘독립서고문’과 개혁 사업의 구상을 담은 ‘홍법 14조’를 발표하였다(1894. 12. 12). ㄱ. 을미사변(1895. 8. 20) 이후 신변에 위협을 느낀 고종과 왕세자가 왕궁을 떠나 러시아 공관으로 파천하였다(1896. 2. 11).

6. 1965년 6월 22일 체결된 한일기본조약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제2조 : 1910년 8월 22일 및 그 이전에 대한제국과 일본 제국 간에 체결된 모든 조약 및 협정이 이미 무효임을 확인한다.
제3조 : 대한민국 정부가 국제연합 총회의 결의 제 195(III)호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한반도에 있어서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확인한다.

- ① 위안부 문제가 주요한 의제로 논의되었다.
- ② 조약에 반대하여 학생들이 6·10 민주 항쟁을 일으켰다.
- ③ 조약 협의를 위해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되었다.
- ④ 재일교포의 법적 지위 및 대우에 관한 협정도 함께 체결되었다.

6. 정답 : ④

④ 한·일 기본 조약의 부속 협정으로 「재일 교포의 법적 지위와 대우에 관한 협정」에 의하여 재일 한국인이 영주권을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 그러나 이 협정 체결 이후에도 일본 내의 재일 교포는 국민연금으로의 가입을 포함한 사회보장과 사회복지, 외국인 등록법에 의한 지문날인과 등록증의 상시휴대 및 일본의 공립학교에서 공부하는 한국인 자녀에 대한 민족 교육 등 다수의 중요문제가 남아 있었다.

① 한·일 기본 조약은 일본의 침략 사실 인정과 가해 사실에 대한 진정한 사죄가 선행되지 않았고, 청구권 문제, 어업 문제, 문화재 반환 문제 등에서 한국이 지나치게 양보하여 국내에서 크게 논란을 일으켰다. 특히 「청구권·경제협력에 관한 협정」은 그 뒤 일제 강점기 피해자 보상과 위안부 보상 문제 등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의 원인이 되었다. ② 1964년 3월 정부가 한일 외교 정상화 방침을 밝히자, 굴욕적인 한일 회담에 반발하여 전국 각지에서 대규모 시위가 발생하였다. 이에 박정희 대통령이 전국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고 모든

학교에 휴교령을 내리는 '6·3 시위(사태)'가 발생하였다. ③ 중앙정보부장 이후락이 특사로 파견된 것은 1972년 7·4 남북 공동 성명 때이다. 한·일 기본 조약 체결을 위한 비밀 회담을 위해 파견된 인물은 김종필이다.

7. 고려시대의 경제생활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모두 고른 것은?

- ㄱ. 성종은 건원중보를 만들어 전국적으로 사용하게 하려 했으나 성공하지 못하였다.
- ㄴ. 고려 후기 관청수공업이 쇠퇴하면서 민간수공업이 발달하였다.
- ㄷ. 예성강 어귀의 벽란도는 고려의 국제무역항이었다.
- ㄹ. 원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보초가 들어와 유통되기도 하였다.

① ㄱ, ㄴ, ㄷ
③ ㄴ, ㄷ, ㄹ

② ㄱ, ㄷ, ㄹ
④ ㄱ, ㄴ, ㄷ, ㄹ

7. 정답 : ④

ㄱ. 고려 시대에는 성종 때 철전인 건원중보(996)가 주조되었으나 널리 유통되지는 않았다.
ㄴ. 고려 전기에는 관청 수공업과 소(所) 수공업을 중심으로 관수품이 생산되었고, 고려 후기에는 관청 수공업이 쇠퇴해 갔다. 이에 따라 국가는 공역 대신에 공장세를 거두었고 필요한 물품을 시장에서 구매함에 따라 민간수공업이 더욱 발전하였다.
ㄷ. 고려 시대에는 국내 상업이 안정적으로 발전하고 송, 요 등 외국과의 교역이 빈번해지면서 국제 무역항으로서 벽란도가 변성하는 등 대외 무역이 크게 발달하였다.
ㄹ. 원 진섭기에는 원의 지폐인 지원 보초가 들어와 유통되기도 하였다.

8. <보기>의 조선시대의 국방정책을 시간 순으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 ㄱ. 서울 주변의 네 유수부가 서울을 엄호하는 체제를 구축하였다.
- ㄴ. 금위영을 발족시켜 5군영 제도가 성립되었다.
- ㄷ. 하멜이 가져온 조총 기술을 도입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조하였다.
- ㄹ. 수도방어체계를 강화하고 『수성윤음』을 반포하였다.

① ㄱ→ㄴ→ㄷ→ㄹ
③ ㄷ→ㄴ→ㄹ→ㄱ
② ㄴ→ㄹ→ㄱ→ㄷ
④ ㄹ→ㄷ→ㄱ→ㄴ

8. 정답 : ③

ㄷ. 하멜이 가져온 조총의 기술을 활용하여 서양식 무기를 제조한 것은 효종 때이나. 효종은 제주도에 표류하였던 하멜 일행을 훈련도감에 배속시키고 신식 조총을 제작하게 하였다.
ㄴ. 숙종 8년(1682) 금위영이 설치되어 조선 후기 5군영이 완성되었다. ㄹ. 영조는 「수성 윤음」을 발표(1751)하여 훈련도감·금위영·어영청의 세 군영이 도성을 나누어 방위하는 체제를 갖추었다.
ㄱ. 정조 대 왕권 강화를 목적으로 장용영이 창설되며, 화성에 수원부를 설치하고 광주부를 광주유수부로 승격시키는 등 수도 방어 체제를 정비하였다.

9. 구석기 시대 사람들의 생활상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대체로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생활하였으며 불을 사용할 줄 알았다.
- ② 단양 수양개, 연천 전곡리, 공주 석장리 등 강가에 살던 사람들은 주로 고기잡이와 밭농사를 하며 생활하였다.
- ③ 이 시기의 대표적인 무덤 형식은 고인돌과 돌널무덤이다.
- ④ 주먹도끼, 가로날도끼, 민무늬토기 등의 도구를 사용했다.

9. 정답 : ①

- ①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이동 생활을 하여 동굴이나 바위그늘에서 살거나 강가에 막집을 짓고 살았으며, 불을 이용하고 언어를 구사하였다.
- ② 구석기 시대 사람들은 주로 사냥과 채집 생활을 하였다.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어 밭농사가 시작되었고, 주로 고기잡이 등의 경제생활을 하였다. ③ 고인돌과 돌널무덤은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묘제이다. ④ 주먹도끼와 가로날도끼는 구석기 시대의 유물이나, 민무늬 토기는 청동기 시대의 대표적 토기이다.

10. 통일신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통일 후에는 주로 진골귀족으로 구성된 9서당을 국왕이 장악함으로써 왕실이 주도하는 교육제도를 구축하였다.
- ② 불교가 크게 융성한 통일신라의 수도인 경주에서는 주로 천태종이 권력과 밀착하며 득세하였다.
- ③ 신라 중대 때는 주로 원성왕의 후손들이 즉위하면서 비교적 강력한 왕권을 행사하였다.
- ④ 넓어진 영토를 관리하기 위해 지방행정을 구획하였는데, 5소경도 이에 해당한다.

10. 정답 : ④

- ④ 신문왕 때 지방 행정 조직을 정비하면서 전국을 9주로 나누고 수도가 경주로 치우친 것을 보완하기 위해 5소경을 설치하였다.
- ① 9서당은 교육 제도가 아닌 통일 신라의 중앙 군사 조직으로, 백제·고구려·말갈인들이 포함된 민족 융합적 성격을 지녔다. ② 신라에서는 수도인 경주를 중심으로 화엄종 등 교종 불교가 크게 번성하였다. ③ 신라 중대 때는 김춘추의 후손들이 즉위하였으며 전제왕권을 확립하였다.

11. <보기>에서 제시된 인물의 공통점으로 가장 옳은 것은?

- | | | | |
|--------|--------|--------|--------|
| ㄱ. 김운경 | ㄴ. 최치원 | ㄷ. 최언위 | ㄹ. 최승우 |
|--------|--------|--------|--------|

- ① 고려 출신으로 당나라에서 유학을 했다.

- ② 7세기와 8세기에 활약했던 신라의 대문장가이다.
- ③ 숙위학생으로 당 황제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 ④ 당나라의 빈공과에 급제한 후 귀국하였다.

11. 정답 : ④

제시된 자료의 인물들의 공통점은 ‘6두품’ 신분이라는 점이다.

- ④ 신라 하대 당과의 문화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당에 건너가 공부하는 유학생들이 많아졌다. 대표적으로 김운경, 박인범, 최치원, 최승우, 최언위 등은 당에서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과거인 빈공과에 급제하고 문장으로 이름을 떨치며 당의 학자들과 교유하였다.
- ①, ② 제시된 인물들은 신라 하대인 9세기경에 활동한 대표적인 6두품 학자들이다. ④ 숙위 학생(도당 유학생)은 당에 건너가 국자감에 유학한 후, 그곳에서 빈공과에 합격한 숙위(宿衛) 학생(學生)을 말하며, 이들은 대부분 6두품 출신이었다. 주로 외직(外職)에 제수되었으며, 문한직(文翰職)에 진출하여 왕권 강화의 측근 정치 지향에 기여하였다.

12. <보기>의 어록을 남긴 인물의 활동으로 가장 옳은 것은?

“대전자령의 공격은 이천만 대한인민을 위하여 원수를 갚는 것이다. 총알 한 개 한 개가 우리 조상 수천 수만의 영혼이 보우하여 주는 피의 사자이니 제군은 단군의 아들로 굳세게 용감히 모든 것을 희생하고 만대 자손을 위하여 최후까지 싸우라.”

- ① 화북 조선 독립동맹의 주석으로 선출되어 활동하였다.
- ② 조선 혁명군을 이끌고 영릉가 전투에서 대승을 거두었다.
- ③ 한국 독립군을 이끌고 쌍성보 전투에서 일본군을 격파하였다.
- ④ 조선 의용대를 결성하고 대적 심리전 등에서 크게 활용하였다.

12. 정답 : ③

- 제시된 자료의 어록을 남긴 인물은 대전자령 전투를 이끌었던 한국독립군의 지청천이다.
- ③ 혁신 의회 산하의 한국 독립군은 사령관 치청천을 중심으로 중국 호로군과 연합 작전을 수행하였으며, 중·한 토일군을 조직하여 쌍성보 전투(1932), 사도하자 전투(1933), 동경성 전투(1933), 대전자령 전투(1933)에서 일·만 연합군을 크게 격파하였다.
 - ① 화북 조선 독립 동맹(1942. 7)의 주석을 역임한 인물은 김두봉이다. ② 국민부 산하의 조선 혁명군은 총사령관 양세봉을 중심으로 대도회(大刀會)가 이끄는 중국 의용군과 연합하여 활발한 국내 진입 작전을 전개하였으며, 영릉가 전투(1932), 홍경성 전투(1933)에서 일본군을 상대로 대승을 거두었다. ④ 조선 의용대를 결성한 인물은 김원봉이다.

13. <보기>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와 관련하여 고려시대에 발생한 일로 가장 옳은 것은?

- 모든 관리들을 소집해 [] 을/를 상국으로 대우하는 일의 가부를 의논하게 하자 모두 불가하다고 했으나, 이자겸과 척준경만이 찬성하고 나섰다.
- [] 은/는 전성기를 맞아 우리 조정이 그들의 신하임을 칭하도록 하고자 하였다. 여러 의견들이 뒤섞여 어지러운 가운데, 윤언이가 홀로 간쟁하여 말하기를 여진은 본래 우리 조정 사람들의 자손이기 때문에 신하가 되어 차례로 우리 임금께 조공을 바쳐왔고, 국경 근처에 사는 사람들은 모두 우리 조정의 호적에 올라있는 지 오래 되었습니다. 우리 조정이 어찌 거꾸로 그들의 신하가 될 수 있겠습니까?

- ① 이 국가의 침입으로 인해 국왕은 나주로 피난하였다.
- ② 묘청 일파는 이 국가의 정벌을 주장하였다.
- ③ 이 국가와 함께 강동성에 포위된 거란족을 격파하였다.
- ④ 이 국가의 침략에 대비하여 광군을 설치하였다.

13.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빈칸에 공통적으로 해당하는 국가는 ‘금(金)’이다.

② 묘청은 고려가 금나라에 사대하고 이자겸의 난을 겪는 등 어려움에 처하게 된 원인이 개경의 지덕(地德)이 약해졌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면서, 나라를 중흥시키려면 지덕이 왕성한 서경으로 천도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나아가 이들은 청제 건원을 주장하며 금을 정복하자는 주장까지 하게 되었다.

① 거란 2차 침입(현종 1, 1010) 당시 거란의 성종이 강동 6주를 넘겨줄 것을 요구하면서, 친히 40만의 군사를 이끌고 고려에 침입해 왔다. 이후 개경이 함락되면서 조정 대신들이 항복할 것을 주장하였으나 강감찬이 이에 반대하였고, 왕은 일단 나주로 피신하였다. ③ 고종 3년(1216) 거란군이 가족까지 이끌고 강동 6주로 침입하여 식량을 약탈하고 그곳을 근거지로 삼으려 하자 이를 격파하였다. 거란군이 다음해에 다시 충북 제천까지 침입하자 김취려가 크게 무찔러 격퇴시켰다. 고종 5년(1218) 거란군이 다시 침입하자 조종이 이를 격퇴하였고, 1219년에는 강동성을 근거지로 저항을 계속하는 거란군을 몽골·동진군과 연합하여 격퇴하였다(강동의 역). ④ 고려 정종 대 죄광윤의 보고에 따라 서경의 입지를 강화하고 거란족의 침입에 대비하기 위해 청천강 유역에 30만의 광군을 배치하였으며 개경에는 통수부로서 광군사를 설치하였다.

14. <보기1>의 (가)와 (나)가 발표된 시기의 사이에 있었던 사실을 <보기2>에서 모두 고른 것은?

(가) 첫째, 통일은 외세에 의존하거나 외세의 간섭을 받음이 없이 자주적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둘째, 통일은 서로 상대방을 반대하는 무력행사에 의거하지 않고 평화방법으로 실현하여야 한다.

셋째, 사상과 이념,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우선 하나의 민족으로서 민족적 대단결을 도모하여야 한다.

(나)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한다.

2. 남과 북은 남측의 연합체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체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한다.

<보기2>

- ㄱ.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 ㄴ. 남북 조절 위원회를 설치하였다.
- ㄷ. 경의선과 동해선 철도가 연결되었다.
- ㄹ. 남과북이 동시에 유엔에 가입하였다,

① ㄱ, ㄴ, ㄷ
③ ㄱ, ㄷ, ㄹ

② ㄱ, ㄴ, ㄹ,
④ ㄴ, ㄷ, ㄹ

14. 정답 : ②

제시된 자료의 (가)는 1972년 발표된 ‘7·4 남북 공동 성명’이고, (나)는 2000년 발표된 ‘6·15 남북 공동 선언’이다.

ㄱ. 금강산 관광은 김대중 정부의 대북 정책인 ‘햇볕 정책’과 한국 기업 현대의 노력으로 전개되었고, 1998년 11월 18일 금강호의 출발로 금강산 관광이 시작되었다. ㄴ. 7·4 남북 공동 성명을 통해 남과 북은 합의 사항의 추진과 남북 사이의 문제 해결, 그리고 통일 문제 해결을 목적으로 이후락 중앙정보부장과 김영주 조직지도부장을 공동 위원장으로 하는 남북 조절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기로 하였다. ㄹ. 남북한의 유엔 동시 가입은 1991년 노태우 정권 시기의 사실이다.

ㄷ. 6·15 남북 공동성명 이후 개최된 2000년 제1차 남북 장관급 회담에서 경의선 연결에 합의하였고, 이후 2000년 9월 경의선 연결 기공식이 전개되었다. 그리고 2002년 제2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의 합의에 따라 동해선을 남북한이 함께 복원하기로 하였다.

15. 조선시대의 대외 관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태조는 북방의 여진족을 몰아내고 4군 6진을 개척하였다.
- ② 왜란이 끝난 후 조선은 일본에 통신사를 파견하여 국교재개를 요청하였다.
- ③ 조선후기 북학운동의 한계를 느낀 지식인들은 북벌운동을 전개하였다.
- ④ 조선후기 중국과의 외교와 무역에 은이 대거 소비되면서 은광이 활발하게 개발되었다.

15. 정답 : ④

④ 조선 후기 청과의 교역이 활발해지는 과정에서 은의 수요가 증대되었다. 이에 따라 은을 확보하기 위한 관채(官採)와 사채(私採)가 확산되었다.

① 조선 세종 대 이천, 쇠운덕으로 하여금 압록강 유역에 4군을, 김종서로 하여금 함경도 북쪽에 6진을 개척하게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압록강에서 두만강에 이르는 오늘날의 국경 선이 확보되었다. ② 임진왜란 이후 도쿠가와 막부(에도 막부)는 경제적 어려움을 해결하고 선진 문물을 수용하기 위해 대마도주를 통해 조선에 국교를 재개하자고 요청해 왔다. ③ 호란 이후 화이론을 명분으로 북벌론이 전개되었으나, 그 뒤로는 시간이 흐를수록 점차 쇠퇴하였다. 이후 청의 문물이 발달함에 따라 도리어 그 문화를 받아들이자는 북학 운동까지 나타나게 되었다. 북학 운동을 주도하였던 계충은 사행(使行)에 참여하였던 자제군관(子弟軍官)들로서 이들은 발전된 청나라 문물을 보고 돌아와 청나라의 선진 문물 중 좋은 것은 수용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들은 전통적인 성리학적 의리, 명분보다는 이용후생(利用厚生)에 관심을 가졌다.

16. 두 차례의 양요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어재연이 이끄는 조선군을 프랑스군을 상대로 승리를 거두었다.

②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 호는 평양 주민을 약탈하였다.

③ 양현수 부대는 광성보 전투에서 결사항전 하였으나 퇴각하였다.

④ 박규수는 화공작전을 펴서 프랑스 군대를 공격하였다.

16. 정답 : ②

② 1866년 7월 미국 상선 제너럴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와 평양에서 통상을 요구하며 행패를 부리자, 평양 군민과 충돌하였다. 이에 당시 평안도 관찰사 박규수는 이를 거절하고 배를 격침시켰다.

① 어재연은 1866년(고종 3)에 프랑스 로즈 제독이 강화도를 침략한 병인양요 당시 병사를 이끌고 광성진을 수비하였다. 이후 1871년 2월 도총관·금위영 중군에 임명되었는데, 이에 미군이 강화도를 침략하는 신미양요가 발생하자 삼군부(三軍府)에서 순무중군(巡撫中軍)으로 추천하여 강화도로 급파하였다.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광성진에서 배수진을 치며 수비를 하던 그는 덕진진을 함락한 미군의 총공세에 맞서 고군분투하였다. 수륙양면작전을 전개하는 미군을 맞아 야포사격으로 맞서다가, 육박전에 돌입하여서는 끝까지 물러서지 않고 싸웠으나 결국 장렬하게 전사하였다. ③ 1866년 병인양요 당시 문수산성에서 한성근이 분페하자 프랑스군의 우세한 화력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기습 작전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양현수가 549명의 군사를 이끌고 강화 해협을 몰래 건너 정족산성(鼎足山城, 삼랑성)에 들어가 잠복하다가, 이튿날 정족산성을 공격해 오는 프랑스군을 물리쳤다. ④ 박규수는 1866년 7월 제너럴 셔먼호 사건 당시 평안도 관찰사를 역임하며 격침시켰다.

17. 조선 시대 신분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중앙관직에 진출할 수 있던 고려시대의 향리와 달리 조선의 향리는 수령을 보좌하는 아전으로 격하되었다.
- ② 유교의 직서구분에 의해 서얼에 대한 차별이 심했기 때문에 서얼은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다.
- ③ 뱃사공, 백정 등은 법적으로는 양인으로 취급되기도 했으나 노비처럼 천대받으며 특수직업에 종사하였다.
- ④ 순조는 공노비 중 일부를 양인으로 해방시켜 주었다.

17. 정답 : ②

- ② 서얼은 태종이 제정한 서얼차대법에 의해 문과 응시와 동반(문반)직 등용이 금지되었고, 간혹 무반직에 등용되었다. 이들은 주로 무과나 잡과를 통해 관직에 진출하였으나, 간혹 서반(무반)직에 등용된다고 하여도 한품서용의 규제에 따라 승진에 한계가 있었다. 또한, 서얼은 어머니의 신분에 따라 신분과 상속에서 차등이 있었다.
- ① 조선 시대의 향리는 수령의 지시에 따라 행정 실무를 보좌하는 세습적인 아전으로 격하되었으며, 향역에 대한 경제적 보상은 없었다. ③ 뱃사공(조졸)은 양인 중에서도 천역을 담당하는 계층이라 하여, ‘신량역천(身良役賤)’이라 불렸으며, 백정 등은 조선 초기에만 하더라도 신분상으로는 양인이었다. 하지만 정부의 조치와 상관없이 이들의 직업이 사회적으로 천시되면서 조선 중기 이후에는 천민화되었다. ④ 18세기 후반, 공노비의 노비안이 도망과 합법적인 신분 상승으로 이름만 있을 뿐 신공을 받아 낼 수 없게 되자, 순조 때에 중앙 관서의 노비 6만 6,000여 명을 해방시키기도 하였다. 각 사(司)의 공노비는 제외하고 내수사와 궁방에 소속된 노비만을 재정상·국방상의 목적으로 해방하였으며, 법제적으로 공노비 전체를 해방한 것은 아니었다.

18. 근대 교육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배재학당 : 선교사 아펜젤러가 서울에 설립한 학교이다.
- ② 동문학 : 정부가 설립한 외국어 교육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 ③ 경신학교 : 고종의 교육입국조서에 따라 설립된 관립 학교이다.
- ④ 원산학사 : 함경도 덕원 주민들이 기금을 조성하여 설립한 학교이다.

18. 정답 : ③

- ③ 경신학당(1886)은 미국의 언더우드가 설립한 교육 기관이다. 고종의 교육입국조서(1895. 2) 발표 이후 정부는 1895년 3월 법관 양성소, 4월 관립 한성 사범 학교, 외국어 학교, 각 동별 소학교 등을 설립하였다.
- ① 배재학당(1885)은 미국 선교사 아펜젤러가 설립된 최초의 개신교 계통의 근대식 사립학교이다. ② 동문학(1883)은 윌렌도르프가 정부 지원으로 설립한 외국어 교육 기관으로, 통역관을 양성하였다. ④ 원산학사(1883)는 우리나라 최초의 근대 사립학교로 함경도 덕원 주민들과 개화파 인사들의 합자로 설립되었으며, 외국어·자연 과학·국제법 등 근대 학문과 함께 무술을 가르쳤다.

19.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학십도』를 집필한 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을 편찬하였다.
- ② 그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서인을 형성하였다.
- ③ 기(氣)보다는 이(理)를 중시했고, 예안향약을 만들었다.
- ④ 『주자대전』의 중요부분을 발췌하여 『주자문록』을 편찬하였다.

19. 정답 : ③

왕의 수신 교과서인 『성학십도』를 집필한 인물은 퇴계 이황이다.

③ 이황은 주자의 이기이원론을 계승하여 이귀기천론(理貴氣賤論)으로 발전시켰으며, 이를 바탕으로 불완전한 기(氣)보다는 완전한 이(理)를 중시하였다. 또한 이황은 향촌의 안정이 필요하다는 인식 하에 예안향약(禮安鄉約)을 제정하여 향촌사회가 피폐해지는 것을 해결하고자 하였다. 예안향약은 영남학파의 전통을 이은 제자, 문인들에 의하여 영남지역을 비롯한 각지에서 활용되었다.

① 아동용 수신서인 『동몽선습』은 조선 중기의 문신 박세무가 저술하였다. ② 이황의 학설을 따르는 이들이 처음에는 동인을 형성하였다. 율곡 이이의 학설을 따르는 학자들이 서인을 형성하였다. ④ 『주자대전(朱子大全)』을 발췌하여 『주자문록』을 편찬한 인물은 고봉 기대승이다.



20. 대한민국의 민주화 여정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 ① 1960년대 : 장기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사사오입개헌에 맞서 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이 그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 ② 1970년대 : 유신개헌을 통해 평화적으로 민주화를 추진할 수 있는 법률적 기틀을 제공하였다.
- ③ 1980년대 : 6월 민주항쟁을 통해 군사정권을 종식시키고 선거를 통해 문민정부가 출범하였다.
- ④ 1990년대 : 대선결과에 따라 평화적 정권교체가 실현되었다.

20. 정답 : ④

④ 제15대 대통령 선거에서 야당인 새정치 국민회의 김대중 대표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1997. 12). 이로써 한국 현정사에서 처음으로 여야 간에 평화적인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다. 김대중 정부는 자유민주연합에 국무총리와 내각 각료의 일부를 안배하여 공동 정부를 구성하였다.

① 1969년 장기집권을 획책한 박정희의 3선 개헌에 맞서 학생들과 재야인사들이 반대 투쟁을 전개하였다. ‘사사오입 개헌’(1954)은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해 초대 대통령에 한하여 중임 제한을 철폐한다는 내용(3선 금지 조항 폐지)을 골자로 한 개헌이다. ② 1972년 공포된 유신헌법은 삼권분립, 견제와 균형이란 의회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완전히 부정하고 대

통령에게 권력을 집중하고 있으며, 반대 세력의 비판을 처음부터 원천 봉쇄해 버렸다는 특징을 지니고 있다. ③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승리로 직선제 개헌이 이루어짐으로써 국민들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게 되었다. 이로 인해 민주화의 열기는 더욱 고조되었다. 민주 세력이 김영삼 지지 세력과 김대중 지지 세력으로 양분되어 아당의 후보 단일화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대통령 선거가 치러졌다. 여기서 여당 후보였던 노태우가 당선되어 제13대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바른 길이 빠른 길입니다. 신뢰의 이름!

海東韓國史